

다니엘의 책 - 번호 백팔십사

안식일과 성육신: 밀러파 봉인 과정의 초석

Jeff Pippenger

2024-04-14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밀러주의자 세대를 위한 마지막 시험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에 대한 더 큰 빛이 임한 1856년에 시작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에 셋째 천사가 임함으로 시작된 기간 안에서, 1856년부터 1863년까지 라오디게아 기별이 마지막 시기를 표시했다. 그 기간은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로 나타나 있다.

그 기간은 그 구절들뿐 아니라 그 구절들을 성취한 역사와, 가이사라 빌립보로도 알려진 파니움의 지리적 증거에 의해서도 드러난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십자가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방문하신 곳이며, 그 십자가는 16절이 나타내는 일요일 법령을 상징한다. 1844년 10월 22일, 유다 지파의 사자는 안식일 교리를 특별한 빛 가운데 드러내셨다. 그 후 그 시험 과정의 끝에서 그분은 "일곱 때"에 관한 지식의 증가를 주셨고,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는 안식일의 교리이다. 이는 땅이 쉬는 안식 규정이 사람들이 쉬는 안식 계명과 직접적으로 대응함을 의미한다. 2,520년의 시간 예언과 2,300년의 시간 예언은 모두 1844년 10월 22일에 끝났다.

1856년부터 1863년까지의 시험 과정의 마지막 시기는, 인침과 시험 과정의 처음에 특별한 빛 가운데 놓였던 안식일에 대한 더 큰 계시였다.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의 성취로 나타나는 역사는, 14만 4천에게 하나님의 인이 영원히 인쳐지는 시험의 기간을 가리킨다. 그 역사에서 에스겔의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진다. 두 막대기의 결합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내며, 그 역사에서 특별한 빛 가운데 드러나는 교리는 성육신 교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친히 육신을 취하심으로 인자가 되셨다는 이중적 본성을 드러내셨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예언들을 탐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끌림을 받았고, 땅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에 관하여 배우게 되었다. 그들은 신적 도움 없이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미리 예언했던 그분의 도우심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예언적 묘사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들은 예언의 성경 말씀을 얼마나 희미하게 이해했던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위대한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더뎠던가!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걸으시며 자기를 낮추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분의 성육신의 신비, 그분 본성의 이중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에 인성 속에 깃든 신성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으로 조명을 받은 후, 그분을 다시 뵈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던가! Desire of Ages, 507.

1844년 10월 22일부터 1863년까지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 기간은 인침 동안 봉인이 풀리는 많은 진리들 가운데 안식일이 특별한 진리로 강조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끝날지를 밝히는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때에, 그가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0:7.

일곱째 천사는 또한 셋째 화이다. 이는 이슬람의 전쟁이 활발하던 역사적 시기에 인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844년 10월 22일 이후의 기간에 밀러주의 재림운동이 신실했다더라면, 1840년 8월 11일에 억제되었던 이슬람은 풀려났을 것이다.

"만일 재림교인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전개되는 섭리를 따라 연합하여 나아가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세상에 선포했다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며, 주께서 그들의 수고와 함께 능력 있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그 사업은 완성되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상급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망 뒤에 이어진 의심과 불확실성의 기간 동안 많은 재림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였다. ...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은 방해를 받았고, 세상은 어둠 속에 남겨졌다. 만일 재림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위에 연합했다더라면,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달라졌겠는가!" 복음전도, 695.

1844년 10월 22일,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시작했고 희년의 나팔도 울리기 시작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안식년을 일곱,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계산할지니, 그리하면 그 일곱 안식년의 기간이 네게 사십구 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일곱째 달 열흘, 곧 속죄일에 희년의 나팔 소리를 너희 온 땅에 울리게 하라. 너희는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희년이 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며, 각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레위기 25:8-10.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때가 시작될 때, 이슬람이 수행한 전쟁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나팔이 있고,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나팔이 있다. 한 나팔은 외적인 역사를 드러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의 언약 백성들의 내적 경험을 대표한다. 그들의 인성이 그의 신성과 영원히 연합될 때 그들의 속박은 풀린다. 줄에 줄을 더하는 원칙으로 보면, 그 두 나팔은 한 나팔이다. 이는 희년의 나팔은 오직 속죄일에만 불려지고, 속죄일은 셋째 화의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밀러 운동에서 두 나팔을 대표했던 교리는 안식일의 빛이었다. 이 마지막 때에 두 나팔을 대표하는 빛은 성육신의 교리이다. 줄에 줄을 더하는 원칙으로 볼 때, 안식일과 성육신 교리는 동일한 교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는 안식일로 상징되는 창조주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울은 그분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참으로 그분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 들었으나, 약속된 메시아요 모든 세계의 창조주요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그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으리라고는 믿지 못했다. 바울의 생애 스케치, 256쪽.

안식일은 창조주를 가리키며, 그 창조주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였다.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인자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남녀에게 이길 능력을 가져오셨다. 그는 인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사셨다. 그는 입증되고 시험받기 위해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떠맡으셨다. 그의 인성 안에서 그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셨다. 성육신하심으로 그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누가복음 1:35). 사람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처럼 그분은 우리 세상에 계셨다—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출생으로 인류와 결속되신 분으로. 선택된 메시지, 제1권, 226.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이중 고백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1844년에 밝혀진 안식일 교리, 그리고 말세에 인정되는 성육신 교리를 깨닫는 14만 4천을 대표하였다. 이중의 진리의 빛은 인침의 기간의 시작과 끝에서 드러난다. 이는 1844년 10월 22일부터 1863년까지의 인침의 역사와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음성의 역사가 증언한다.

밀러파의 인침 과정의 선과 요한계시록 18장의 인침의 예언적 선 모두에서, 그 기간의 맨 끝에 시험이 있는데, 그때 한 부류는 1856년부터 1863년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련한 처녀로 드러나고, 다른 한 부류는 2023년 7월부터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슬기로운 처녀로 드러난다. 그 마지막 시험 기간은 그 기간의 시작을 반복한다. 2001년 9월 11일에 강림했던 바로 그 천사가 2023년에 미가엘로 오셔서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부르시되,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이는 영원한 사망으로 부르신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기초로 되돌아가게 인도하신다. 어떤 이들은 옛 길로 행하기를 거절하고, 어떤 이들은 옛 길로 행한다. 어떤 이들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이들은 듣기를 거절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들에 서서 보고, 옛적 길을 물으라,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레미야 6:16, 17.

파수꾼이 부는 나팔이 나타내는 메시지는 두 가지다. 그것은 이슬람의 일곱째 나팔이자 해방의 희년 나팔이다. 그것은 성육신의 신비에 의해 성취되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대한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인, 곧 안식일을 받을 준비가 된 품성을 형성한다. 2001년으로부터 스물두 해가 지난 2023년 7월에 시작된 그 인침의 마지막 기간과 관련된 메시지와 일, 그리고 상황은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대표된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모든 처녀가 지체하는 동안 잠들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르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나 내가 가서 그를 잠에서 깨우려 하노라." 제자들이 말하되,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 11:10-14.

21일이 끝날 때,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았으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도망하여 숨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힘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얼굴빛이 변하여 쇠약해졌고 내게는 기운이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고,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다. 다니엘서 10:7-9.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사흘 반 동안 거리에 죽어 있었고, 에스겔의 죽은 뼈들은 골짜기에 있었다. 2020년 7월 18일, 셋째 천사의 운동에 속한 처녀들에게 영적 죽음과 잠듦의 지체 시기가 임했다. 3년 후,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백성을 그분의 기치와 강한 군대로 깨우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2020년 7월 18일에 강림한 그 천사는, 천사들이 강림할 때 늘 그러하듯, 한 진리의 봉함을 풀었다.

그가 봉인을 풀어 밝힌 진리는 지체의 때와 첫 실망의 경험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백성은 흩어졌고, 역사 속에서 그들을 깨우는 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흩어졌으며 지체의 때에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했다. 이어 지체의 때에 대한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천사들, 곧 많은 메시지들이 보내졌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큰 빛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의 광선은 해처럼 밝게 보였다. 그리고 나는 천사들의 음성이 '보라, 신랑이 오시나니; 너희는 나가 그를 맞으라!'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이 한밤중의 외침이었으며,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져 낙담한 성도들을 일깨우고 그들 앞에 놓인 큰 일을 준비하게 하였다.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손하고 헌신적인 자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보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아가라!'고 외치게 강권하셨다. 그 외침을 맡은 자들은 서둘러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울려 퍼지게 하여 낙담한 형제들을 일깨웠다. 이 일은 사람의 지혜와 학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서 있었고, 그 외침을 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을 거스르지 못했다. 가장 영적인 이들이 이 기별을 먼저 받았고, 전에 이 일을 이끌던 이들은 맨 나중에야 이를 받아들이고 '보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아가라!'는 외침을 더욱 크게 하는 데 동참하였다.

땅의 모든 곳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 빛이 비추었고, 그 외침은 수천 명의 마음을 녹였다. 그것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 나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각성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많은 교회에서는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산 증거를 가진 큰 무리가 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한밤중의 외침으로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 기별은 마음을 살피게 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살아 있는 체험을 구하게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Early Writings, 238.

비유에서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메시지가 도착하는 때는 두 부류의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때를 가리킨다.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들은 없다. 그 비유는 밀러파 역사에서 새뮤얼 스노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그 사역에서 스노가 제시한 메시지는 그 시기의 밀러파 간행물에 실린 그의 글들에 나타나 있듯이 발전하였다. 그리고 그가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엑서터 야영 집회에 도착했을 때, 결국 집회에 있던 사람들이 집회를 떠나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시기 또한 표상되었다.

"한 시점"이 되어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완전히 확립되면, 그때 비유에 근거하여 처녀들에게 은혜의 때가 마감된다. 그 "시점"에는 그에 앞서 기별이 전개되는 "한 기간"이 있다. 2023년 7월부터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은 전개되어 왔고, 밀러 운동 당시의 성취와는 달리 그 기별은 "은혜의 때의 마감"에 앞서 전 세계로 전해졌다. 엑서터 집회의 끝에서 은혜의 때가 마감되었을 때, 그 뒤로 그 기별은 "나라의 각처"로 퍼져 나갔고, "둘째 천사의 기별에 빛이 주어졌으며, 그 외침은 수천 명의 마음을 녹였다. 그것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 나가, 하나님의 기다리는 백성이 완전히 각성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우리의 현재 역사 속에서 2023년 7월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그 메시지는 이제 전 세계 120개국에 전해지고 있으며,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의 전개를 보여 주는 기사들은 60개가 넘는 언어로 제공되며, 읽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며, 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것을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1-3.

글들로 표현된 이 메시지의 빛은 두 사람에 의해 대략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자각하도록 각성되지 않는다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들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땅을 비추기 위해 빛이 나아갈 때, 그들은 주님을 돕기 위해 나아오기보다 자기들의 좁은 생각에 맞추기 위해 그분의 사업을 얽매고자 할 것이다. 말하건대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서 매우 통상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인간의 계획과도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우리 중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을 통제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세상에 전해질 기별에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천사의 인도 아래 사업이 전진할 때에도 어떤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까지 지시하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삐를 손에 쥐고 계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분이 자신의 의의 사업을 이루고 완성하시기 위해 사용하실 단순한 수단들로 인해 일꾼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목사들에게 주는 증언, 300쪽.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의 백성을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로 인도하셨으며, 그 구절들은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전 63년의 역사와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신 역사를 열어 준다. 예언들과 그 성취의 역사는 모두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어 있던 다니엘서의 부분과 일치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책이므로, 마지막 때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리며, 그 계시에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다니엘의 부분이 포함된다. 엑서터 야영 집회의 결말이 임박했다.

또 그가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0, 11.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리는 기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한 것도 아니며,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두루 헤매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달려다닐지라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남자들이 목말라 피곤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며 말하기를, 단아, 네 신이 살아 있다, 또 브엘세바의 풍속이 살아 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도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8:11-14.